



“40여년 곁 인생… 큰곶 전승에 활력 생겼으면”

제주 문화계 이 사람 (33) 서순실 제주큰곶보존회장

곶 현장 공감력 높은 예능인
쓰시마 위령곶도 감동 전해
안사인 심방 등 고마운 스승
“제주큰곶 국가문화재 승격
전승 기반 탄탄해지길 기대”

“언제 올건가 기다리당 보난 70년이
넘었구나. 산사람이든 편지 연락이라
도 허주만. 이제랑 산을 넘고 바다
건너 4·3평화공원으로 그릅세.”

그는 곶판에서 ‘단골’로 불리는
청중들과 높은 공감력을 보여주는
예능인이다. “왜 오늘 이 곶을 하는
가”를 고민하고 그에 맞춤형 사설로
현장의 감동을 빛냈다.

지난 29일 열린 제3회 ‘제주도 4·3
사건 희생자 쓰시마·제주 위령제’
위령곶도 그랬다. 4·3평화공원에 행
방불명인 표석이 있다는 걸 알고 시
신조차 확인 못하는 수장 희생자들
을 바다에서 끌어내 제주로 고이 모
시는 제사를 진행했다.

제주큰곶보존회 회장인 서순실 심
방. 다큐멘터리 사진가 김수남의 사

전에 김녕리 잠수곶을 하는 20대의
옛된 그가 등장했듯, 10대 시절부터
시작된 그의 곶 인생은 40년이 넘는
다. 그 여정에 세 명의 ‘스승’이 있
었다. 무업을 했던 어머니, 칠머리당
영등궁 초대 보유자인 안사인 심방,
제주큰곶 보유자 이종춘 심방이다.

어머니는 생전에 안사인·이종춘 심
방에게 “아조방, 우리 딸 부탁했습다”
라는 말을 했었다. 곶판을 다니는 여
자에게 따라붙는 뒷말을 염려한 거였
다. 1980년 제주 심방들을 불러모았던
전국민속예술경연에 참가하며 인연을
맺은 안사인 심방은 칠머리당군 전수
생이던 그를 “당차다”고 북돋우며 곶
을 가르쳤다. 제주큰곶으로 이끈 이종
춘 심방은 ‘곶 문서’를 그에게 남겼다.

현재 그는 2001년 제주도문화재로
지정된 제주큰곶 전수교육조교로 있
다. 제주큰곶은 ‘낮도 이레, 밤도 이
레, 두이레 열나흘’ 동안 계속해야 끝
이 나는 말그대로 큰곶이다. 한국에
전승되는 곶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
고 형식과 내용이 풍부한 ‘제주 제1
의 무형문화재’라고 하지만 국가무
형문화재로 승격되지 못하고 있다.
제주도에서 2016년부터 국가무형문



지난 29일 일본 쓰시마 4·3위령곶을 집전한 서순실 심방. 제주큰곶 전수교육조교인 그는 큰곶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승격돼 전승 기반이 좀 더 탄탄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. 전선회기자

화재 신규 종목 지정 신청에 나섰지
만 문화재청이 보내온 답은 ‘보류’였
다. 지난 8월 제주도에서 문화재청을
방문해 조속한 지정을 요청한 상태
지만 지금껏 긍정적 신호는 없다.

서 심방은 “이종춘 보유자가 돌아
가신 뒤 큰곶을 혼자 전승하려니 힘
에 부친다”며 “덩치 큰 제주큰곶을
보존하려면 국가문화재 지정으로 전
수생 모집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져
야 한다”고 했다. 그는 제주도문화재
인 ‘영감놀이’ 종목까지 관여하는 제
주큰곶보존회원 20명 덕분에 그나마

버티고 있다.

곶판에 찾아드는 갖가지 사연을
접하며 슬픈 자들을 위무해온 때문
일까. 그는 제주큰곶보존회원들에게
기회있을 때마다 “황금에 눈 멀지 말
고 이 길을 감시다”라고 말한다. 곶
판에서 신에게 바치며 내는 돈인 ‘인
정’을 기부하는 일도 그래서다. 2018
년 1주일에 걸쳐 70주년 4·3 해원상
생곶을 벌일 때도 4·3 유족들을 위해
‘인정’을 내놓았고 쓰시마에서도 제
주 4·3희생자들을 위해 공양탑을 세
운 일본인에게 전했다. 전선회기자

“쓰시마 공양탑 한·일 민심 달래주길”

위령제 찾은 김시중 시인
4·3 때 수장 희생자 목격
“日 식민통치 4·3 등 초래
쓰시마 근현대사 비극 증거”



‘남로당 말단 당원’으로 직접 수장 희생자를 목격했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제주를 떠난 일이 여태껏 그의 마음을

한눈에 봐도 지팡이를 짚은 시인의
모습은 불편해보였다. 근래 부쩍 몸
이 쇠약해진 탓에 병원 신세를 져야
하는 그이지만 올해는 꼭 가야 한다
며 나선 길이었다. 지난 29일 일본
쓰시마섬(대마도)에서 열린 제3회
제주4·3사건 쓰시마·제주 위령제를
찾은 김시중(90·사진) 시인이다.

일본 문단의 영향력있는 시인으로
지난 28일 쓰시마에 도착한 그는 히
타카쓰항 인근 숙소에 짐을 풀 제주
사람들을 기다렸다. 일일이 반갑게
맞았다. 4·3 시기인 1949년 제주를
떠나 일본으로 건너간 그에게 ‘우리
고장 제주’는 여전히 눈물나는 이름
인 듯 했다.

“4·3사건 당시 수장이 시작된 게
1948년 10월말쯤 부터다. 손목에 쇠
사슬을 묶어 수장시켰던 시신을 탑
동 자갈밭에서 봤는데 물에 던져 오
래된 탓인지 비지처럼 되었다. 500
여명이 수장 학살 당했다는데 실제
로 떠오른 사람은 얼마 없었다. 그
시신들이 흘러갔다면 대마도로 표류
해 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수
백구 표착 시신이 이곳에서 나왔다.
그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대마도 사
람들이 수습을 못해서 때로 묶어서
다른 곳으로 띄워보냈을 정도였다.”

지난 4월 제주시 건입동 주정공장
터에서 진행된 4·3위령제 등에서 증
언했던 내용이지만 시인은 기자들에
게 이 말을 다시 꺼내면서 울먹였다.

문화가 쏙지

뮤지컬 ‘우리 아빠가 최고야’

유명 그림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‘우
리 아빠가 최고야’를 원작으로 만든
동명의 가족뮤지컬이 이달 2~3일 설
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공연된다.

이 작품은 무엇이란 적적 해내는 멋
진 아빠의 모습을 아이의 시선에서 따
뜻하게 그려냈다. 공연 시간은 2일 오
전 11시와 오후 1시, 3일 오전 11시,
오후 1시와 3시. 문의 1688-4878.

제주합창단 기획공연 연기

복상중인 태풍 ‘미탁’의 영향으로 이
달 2일 저녁 제주아트센터에서 열릴
예정이던 제주도립제주합창단의 기
획 연주회가 10월 23일 오후 7시 30
분으로 연기됐다. 제주합창단은 30
일 “관람객들의 안전 등을 고려해 공
연 연기를 결정했다”고 밝혔다.

“조역 기대 이상… 비극적 사랑 설득력 약해”

제주아트센터 ‘카르멘’
적은 예산에 대형 오페라
제주 음악인들 적극 활용
“일부 연기·연출 아쉬움”

유료 관객 95%를 끌어오으며 막을 내
린 제주아트센터 제작 오페라 ‘카르
멘’은 “적은 예산으로 난이도 높은 작
품을 무난히 펼쳤다”는 평이 나왔다.

지난 27~28일 두 차례 공연된 이
작품은 제주출신 소프라노 강혜명씨
가 연출자로 데뷔한 무대였다. 첫날
카르멘 역의 안소피 뱃상, 돈 호세
역의 장 노엘, 연주를 담당한 코리아
솔로이스츠오케스트라를 지휘한 필
립 메스트레 등 작곡가 비제의 나라
인 프랑스의 음악인까지 참여하며
관심을 모았다.

제주아트센터 집계 결과 관객 수
는 1184석 객석에 첫날 1023명이 입
장했고 유료 관객은 893명에 달했다.
둘째날에는 931명이 관람했는데 이
때 유료 관객은 746명이었다.

‘카르멘’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제
주아트센터의 세계 명작 오페라 기
획 시리즈 두 번째 작품이다. 제주아
트센터의 대표 사업이지만 예산이 1
억5000만원에 그쳐 휴식을 포함 약
4시간에 달하는 4막짜리 대형 오페
라 ‘카르멘’을 2시간 30분으로 축약
해 선보였다.

이번 공연은 일부 주역을 제외하
면 지역 인력을 적극 활용했다. 제주
에서 활동하는 성악가는 물론 제주
대학창단, 소리풍경어린이합창단 등
150명 이상이 무대에 섰다.

첫날 공연장을 찾은 제주의 한 음
악인은 “비제의 음악이 어려운데 노

력한 흔적이 보였다”며 “미카엘라,
메르세데스, 프라스키타, 단카이로
등으로 나온 조역들이 기대 이상이
있고 3중창, 5중창 등 까다로운 곡들
을 잘 소화했다”고 말했다. 반면 주
인공들의 얽히고설킨 관계가 긴장감
있게 드러나지 않고 4막 도입부 군중
신에서 대규모 출연진의 동선이 겹
치면서 뒤이은 장면을 제대로 구현
하지 못했다고 했다. 무대 세트 역시
예산을 감안하더라도 빈약했다고 덧
붙였다.

또 다른 음악인은 첫날 공연에 대
해 “제주 음악가들이 좋은 경험을 했
다는 점은 긍정적”이라면서도 “돈 호
세가 카르멘에게 빠져드는 계기가
설득력있게 그려지지 못했고 비극적
결말을 맞이하는 순간에 대한 표현
역시 고민이 부족했던 것 같다”는 소
감을 전했다. 전선회기자

‘세계토착어의 해’ 기념음반·공연

제주어로 노래하는 제라진소년소녀
합창단(단장 이예리)이 2019년 UN
선포 세계토착어의 해를 제주도민들
과 기념하기 위해 한글날인 이달 9일
오후 1시 김만덕기념관에서 특별공
연을 갖는다.

‘제주어 어떻게사 더 지켜갈건고’
란 이름을 단 이날 공연은 연극인 강
상훈·정민자 부부의 제주어 진행으
로 제라진합창단은 물론 4·3평화문
학상 수상 시인 김병심, 제주어구연
동화 대상을 수상했던 제주북초 1학
년 양서진 어린이, 구좌와들합창

단, 제주어로 노래하는 가수 양정원
과 박순동투림 등이 출연한다. 제주
북초병설유치원 제주어 그림전 등
부대 행사도 마련된다.

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은 이번 공
연에 앞서 세계토착어의 해 기념음
반도 내놓았다. 제주어 노래 11곡을
비롯 김만덕, 제주4·3을 그린 곡이
담겼다. 단원들이 심시일반해 제작된
음반으로 유치원, 학교, 다문화가정
과 제주어를 사랑하는 시민들에게
증정할 계획이다.

전선회기자 sunny@ihalla.com

진주강씨 충정공파

濟州入島 600年

진주강씨충정공파 濟州入島 600年 기념행사

1418년 제주에 첫 강씨의 성을 뿌리 내린 휘 윤희 입도조님 및 선조님을 위한 송조, 종친의 유대강화를 위한 돈독, 나아가 후대를 위한 육영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

● 일 시 : 2019년 10월 6일(일요일) 10시

● 장 소 :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

● 주 최 : 진주강씨충정공파제주도종친회

● 주 관 : 진주강씨충정공파제주도청년회

도중손(형걸)

도회장(명철)

청년회장(봉재)

주요행사 일정

10:00 식전행사

10:30 개회식

11:00 입도600년사 강연(강동욱박사)

성공사례(블랙야크 강태선 회장)

종친문화,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.(토론회)

12:30 오찬(뷔페)

14:00 이벤트 행사

후원 및 행사문의

진주강씨충정공파제주도청년회 총무 강문빈 010-7376-7354